

## Strategy Idea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산업 업데이트

- ✓ 25년 세계로봇박람회의 3가지 특징: ① 더 낮은 가격, ② 지능화, ③ 상업용으로 확대
- ✓ 시장의 관심사는 기술 개발에서 기업별 수주 실적으로 이동
- ✓ 차이나 휴머노이드로봇 산업은 개화 초기, 주가 올랐지만 중장기 투자 매력 충분

## 25년 세계로봇박람회(WRC) 주요 내용과 특징

## 25년 WRC, 사상 최대 규모

8월 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로봇컨퍼런스(World Robot Conference, 이하 WRC)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더 스마트하고 지능적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 세계 220여 개의 로봇 기업이 1,500여종의 제품을 전시했다. 참가 기업은 유니트리(Unitree), 유비테크(UBTECH), 애지봇(Agibot), 러취(Leju) 등 중국 대표 로봇 기업이 주를 이뤘고, 해외 기업 중에는 AI칩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참여했다.

올해 WRC는 지난해와 비교해 다음 3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 3가지 특징:

## 1) 제품 가격 하락

첫째, 제품 가격의 하락이다. 유니트리는 7월 25일 대당 770만원(3.99만 위안, 5,900 달러)에 불과한 R1 모델을 공개했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가격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던 G1보다도 한층 낮은 가격이다. 가격 인하의 주요 요인은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경량화 설계, 대량 생산에 따른 하드웨어 원가 절감으로 분석된다. 왕싱싱 CEO는 "출하량 확대가 로봇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LimX Dynamics의 Oli와 RoboTera의 L7 모델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출시돼, 작년 (10만~15만 달러)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 2) 지능화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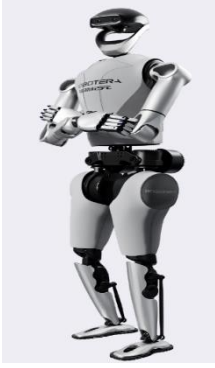
둘째, 기술개발 초점이 체화지능(Embodied AI)으로 전환됐다. 작년 기술 개발이 로봇 부품의 핵심 기술 돌파와 국산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능화가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유비테크는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BrainNet 2.0' 명령 체계와 로봇 내부에 탑재된 Co-Agent를 연결해 다수 로봇이 협업하는 구조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례를 제시했다. 신규 모델 Walker S2는 스스로 3분 이내 배터리를 교체하여 24시간 \* 7일 연속 가동이 가능한 기술

## 3) 상업용으로 확산

셋째, 산업용을 넘어 상업용으로 확산도 나타났다. 올해 WRC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 영역이 산업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Fourier의 GR-3 모델은 요양병원을 주요 타겟으로 한 케어봇(Care-bot)이다. 사람과의 감정적 교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드러운 외관 디자인과 쿠션 처리된 표면을 적용해 접근성과 친밀감을 강화했다(그림 3).

키논(KEENON, 擎朗智能)은 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XMAN 시리즈를 출시, 각테일 제조, 팝콘 조리 등 엔터테인먼트형 서비스 로봇 기능을 선보였다(그림 4). 갈봇(Galbot)은 유통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연하며 판매, 고객 응대 등 상업적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그림 5). 이와 같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 상업용 → 가정용으로 단계적 확산을 거듭하고 있다.

표1 25년 7월에 공개된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로봇 신모델

| 모델명      |          | R1                                                                                 | LimX Oli                                                                           | L7                                                                                  | Walker S2                                                                            |
|----------|----------|------------------------------------------------------------------------------------|------------------------------------------------------------------------------------|-------------------------------------------------------------------------------------|--------------------------------------------------------------------------------------|
| 형상       |          |  |  |  |  |
| 기업       |          | Unitree                                                                            | LimX Dynamics                                                                      | RoboTera                                                                            | UB Tech                                                                              |
| 주요 특징    |          | 커스터마이징 가능                                                                          |                                                                                    | 첫 VLA LLM 모델 탑재                                                                     | 배터리 스스로 교체                                                                           |
| 추정 현재 가격 |          | \$5,900 ~                                                                          | \$2.25만 ~                                                                          | \$7만 ~ 14만                                                                          | \$10만 ~                                                                              |
| 주요 스펙    | 키        | 121cm                                                                              | 165cm                                                                              | 171cm                                                                               | 176cm                                                                                |
|          | 무게       | 25kg                                                                               | 55kg                                                                               | 65kg                                                                                | 70kg                                                                                 |
|          | payload  | 2kg                                                                                | 3kg                                                                                | 20kg                                                                                | 15kg                                                                                 |
|          | 배터리      | 2-3시간                                                                              | 2시간                                                                                | 2.5-3.0시간                                                                           | 2시간/ 7*24시간 가능                                                                       |
|          | 자유도(DoF) | 24                                                                                 | 31                                                                                 | 55                                                                                  | 52                                                                                   |

자료: 각 사,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유비테크가 선보인 로봇들의 스마트한 협업 구조 (BrainNet 2.0 + Co-A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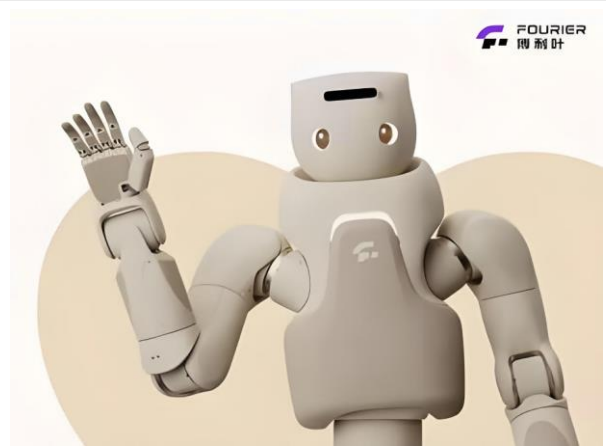
자료: W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유비테크, 스스로 배터리 교체하는 Walker S2



자료: 유비테크, W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Fourier 최신 Care-bot GR-3 : 부드러운 외관이 특징



자료: Fourier,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키논의 서비스업 휴머노이드 XMAN-R1



자료: KEENON, 로봇신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리테일에 종사하는 갈봇(Galbot)



자료: Baidu, W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시장의 관심은 기업별 수주 실적으로 이동

시장의 관심은 기술 개발에서  
수주 실적으로 이동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심은 기업별 수주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주는 곧 기업의 상업화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유비테크:**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선두기업이다. 최근 MiEE Automotive와 9,051만 위안(약 175억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공급 계약을 체결, 중국 단일 휴머노이드 기업 수주액으로 최대 규모이다. MiEE는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출 플랫폼으로, 유비테크의 Walker S는 공장 내 부품 운반 및 조립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는 올해 300~500대 인도 목표를 제시했으며, 상반기 약 100대가 인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계약의 기간과 공급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Walker S의 사전 주문가(약 30만 위안)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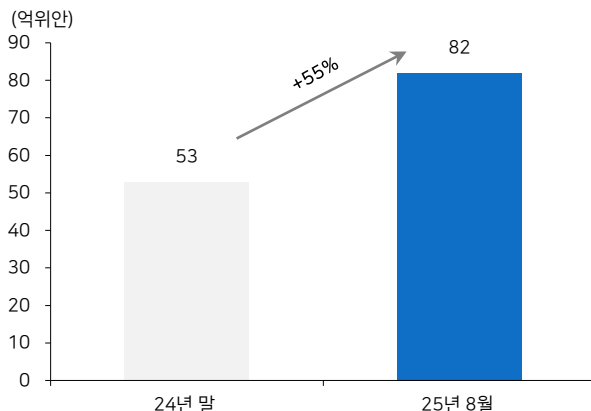
**애지봇:** 화웨이의 '천재소년 프로그램' 출신이 23년 2월에 설립한 기업이다.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수주를 확보했으며, 올해 7월 중국 최대 통신사인 China Mobile과 7,800만 위안(약 156억원) 규모의 2년('25~'27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주하이 Embodied AI 혁신센터'와도 1,273만 위안(약 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올해 8월에는 LG전자와 미래에셋이 전략적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으며, 21일 파트너회의를 통해 신기술과 상업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니트리:** 중국 내 대표적인 가성비 중심 휴머노이드 기업이다. 순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8건의 수주를 확보했다. 올해 7월 11일, 차이나모바일과 4,600만 위안(약 92억원) 규모의 2년간 소형 휴머노이드 및 로봇 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증가로 '25년 시장규모  
전망치 50%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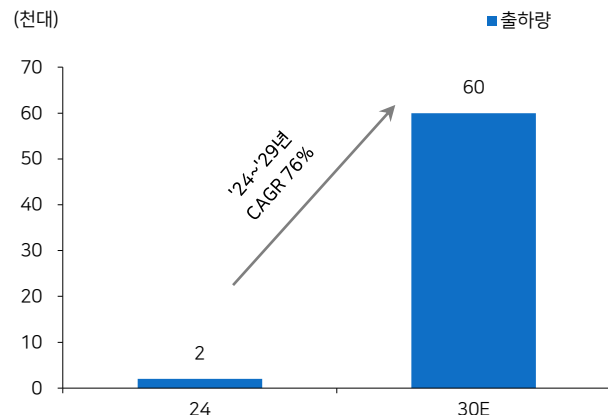
이러한 수주 확대에 힘입어 '25년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시장 규모 전망은 작년 말 예상치인 53억 위안에서 82억 위안으로 약 55% 상향 조정되었다. 시장 조사업체 IDC는 2030년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출하량이 6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6 '25년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시장 규모 55% 상향



자료: Lead Zhik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30년 중국 휴머노이드 출하량 6만대로 전망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산업 전면 개화의 걸림돌: 체화지능 수준과 아키텍처

단 체화지능 수준은  
여전히 폭발적 성장의 걸림돌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 현황을 보면 절반 가량이 공연, 전시장 안내, 교육, 연구개발 등 비(非) 산업용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 투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이는 체화지능(Embodied AI)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주요 기업들은 자체 개발 모델과 바이두, 엔비디아, 화웨이 등 빅테크의 모델을 혼용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자유롭게 범용 활용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니트리의 왕싱싱 CEO는 이러한 한계의 원인을 물리 데이터 축적 부족이 아니라 체화지능에 적용되는 아키텍처의 미성숙으로 지적했으며, 최근 구글이 실시간 3D 비디오 생성 AI 모델이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의 체화지능  
육성 정책 강화

하지만 빠르면 1~2년, 늦어도 3~5년 안에 로봇 '챗GPT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6개월 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고 2027년까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유지되며 다수의 민간 기업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 2~5년 내 현재보다 가격이 낮고 수명이 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양산이 중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업용 시장 확대와 함께 상업용, 가정용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중국 주요 휴머노이드로봇의 AI 모델 개발 현황 정리

| 기업명     | 모델       | AI 모델            | 비고        |
|---------|----------|------------------|-----------|
| 매지봇     | A2       | G0-1 LLM (VILLA) | 자체 개발     |
| GALBOT  | G1       | GraspVLA         | 자체 개발     |
| 유비테크    | Waler S1 | 멀티모달 LLM         | 바이두+자체 개발 |
| KEPLUR  | K2       | 멀티모달 LLM         | 바이두       |
| Fourier | GR-1     | GROOT LLM        | 엔비디아      |
| Leju    | KUAVO-MY | PANGU LLM        | 화웨이       |

자료: GGI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의 체화지능 정책 목표 (2027년 타깃)

|        | 베이징                                                               | 상하이                                                                           |
|--------|-------------------------------------------------------------------|-------------------------------------------------------------------------------|
| 발표 일자  | 2025.2.28                                                         | 2025.8.6                                                                      |
| 기본 목표  | - '27년까지 알고리즘·칩·제어기술 분야에서 100건 이상의 기술 돌파 실현<br>- 전후방 산업에서의 국산화 실현 | - '27년까지 Embodied AI 산업 규모를 500억 위안(1조원)까지 육성<br>- 핵심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에서 20건 이상 돌파 |
| 지원 체계  | - 연간 최대 3000만위안 장려<br>- 사무실 공짜 제공, 연산능력 사용 보조금 지원                 | - 프로젝트 당 최대 2천만 위안, 비용의 50% 지원                                                |
| 생태계 육성 | - 2개의 체화지능 AI 클러스터 육성                                             | - 푸둥 창창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br>- 핵심 부품(모터/센서/칩 등) 개발 가속                             |
| 응용 분야  | - 물류·조립·의료·요양·가정 서비스 등 적용 확산                                      | - 물류·조립·의료·요양·가정 서비스 등 적용 확산                                                  |

자료: 베이징 및 상하이 정부 홈페이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주가 이미 급등했지만 중기 투자 매력도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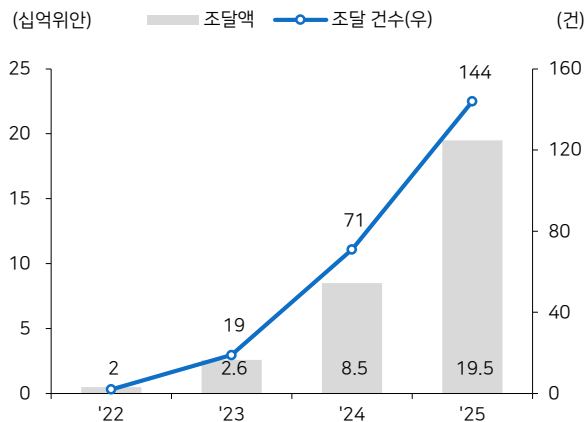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로봇 투자 빠르게 증가

정리하면 현재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은 개화 초기 단계이다. 춘추전국 시대만큼 다양한 기업과 모델이 출시되면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지 조사기관 GGI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비상장 포함)들의 자금조달 건수는 144건, 조달액은 195억 위안으로 작년 연간 조달액인 85억 위안의 2배를 넘어섰다(그림 8). 대표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모두 전년대비 적게는 50%, 많게는 114% 증가했다(그림 9).

###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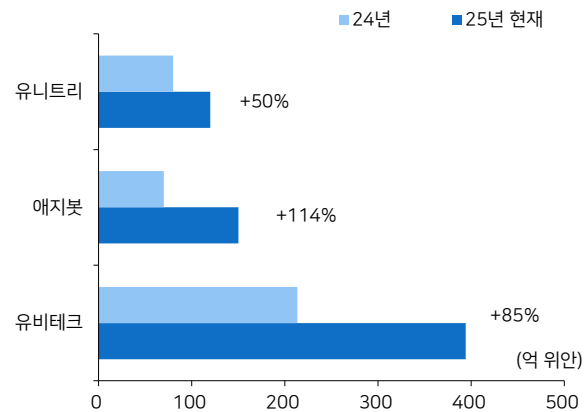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휴머노이드 지수가 연초대비 42%(8/8일 기준) 상승하며 동기간 시장(CSI300) 대비 37%p 아웃퍼폼했다(그림 10). 휴머노이드 대표 상장 기업인 유비테크의 주가도 작년 말 대비 69% 상승, 유니트리의 밸류체인 기업인 종다리더도 325% 폭등했다(그림 11).

그림8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산업 내 자금조달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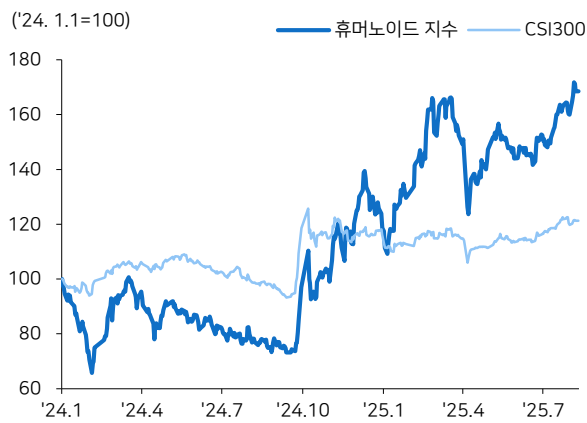
주: '25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GGI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요 기업 기업가치 상승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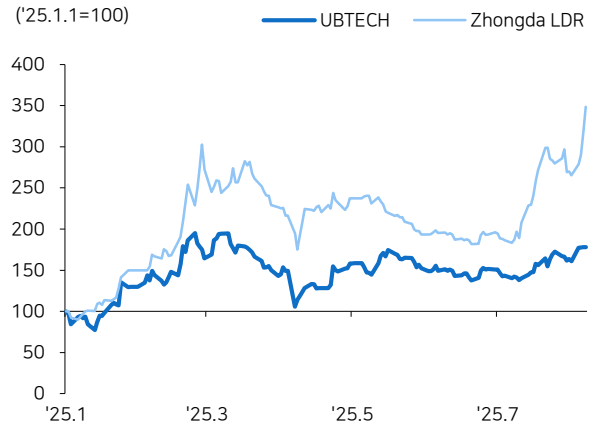
주: 24년 기업가치 적용 기준: 유니트리 9월, 애지봇 11월, 유비테크 12월 말  
자료: 현지 언론,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중국 휴머노이드지수, 올해 CSI300 지수 크게 상회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대표 상장사 유비테크와 종다리더도 연초대비 급등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핵심 변수: 수주 + 기술**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는 ① 수주 진행 속도와 ②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 수준이 꼽힌다. 올해 2분기에는 수주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나, 7월 들어 주요 기업들의 신규 수주 발표로 시장 기대치가 재차 상승했다. 다만, 8월 12일 세계로봇컨퍼런스(WRC) 폐막 이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따른 가격 조정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산업 초기**  
**중장기 투자 매력 충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 초기 단계 특성상 개별 기업의 수주 투명성은 낮지만, 제품 단가 하락과 체화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안정적인 수주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니트리, 애지봇 등 대표 기업들이 상장에 나서고 있다. 유니트리는 7/18일에 감독당국에 상장 지도 등록을 완료했고, 빠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예상대로 커황반에 상장된다면 중국 본토 거래소에 상장하는 최초의 휴머노이드로봇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상장 전후로 기술 성과 및 수주 모멘텀 강화가 전반 산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투자자가 차이나 휴머노이드로봇 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은 유비테크와 같이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본 보고서는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권고한다. 현재 산업은 '춘추전국' 단계로, 장기적으로 생존 우위를 확보할 기업을 선별하기 어렵다. 또한 핵심 부품사 상당수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제한되는 본토 차스닥 또는 커황반에 상장되어 있어, 개별 종목 중심의 투자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과 밸류체인 전 영역을 포괄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한국에 설정된 대표 상품 2가지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4 한국에 설정된 차이나 휴머노이드로봇 ETF**

| ETF 명칭               | 종목 코드  | AUM(억원) | 30일 평균 거래량 (주) | 상품 설명                                                                           |
|----------------------|--------|---------|----------------|---------------------------------------------------------------------------------|
|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 0048K0 | 807     | 544,142        | - 환헤지된 상품으로 제공되며,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 및 핵심 부품 공급사에 고루 투자                                |
|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 0053L0 | 481     | 215,483        |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업체와 핵심 부품 기업에 투자<br>- 휴머노이드 완성로봇은 최대 10%, 부품 기업은 최대 8% 비중 제한 적용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